

## [ 오피니언 ]

## 금남로에서

정재현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천668만원이었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는 이보다 월전 적은 1천951만원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자동차 근로자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현대차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3천500만원이다. 기아차도 5천만원이 넘는다. 이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 소득의(3천700만원)의 1.5배나 되고 대학원졸 근로자 연봉 4천678만원 보다 많은 수준이다.

## 연례행사가 된 파업

이쯤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근로자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라”며 절규했던 과거 근로자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임금만 보면 자동차 근로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우리가 이만한 성

과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회생과 땀을 치렀는지 아닌가. 16~19년 연속 파업이라는 피나는 투쟁의 결과다. 그리고 아직도 빠지게 일하는 건 우리네 뒷돈 행기는 건 경영진이다. 우리는 정당한 뒷돈을 받아낸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지난해 GM은 무려 105억6천만달러(10조246억원)의 적자를 냈다. 그리고 GM 노조는 북미 공장 12개를 폐쇄하고 근로자 3만5천명을 감축한다는 회사 측 발표를 지켜봐야 했다.

북미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력감축이었지만 GM 노조는 속수무

## 역주행하는 한국 자동차 노조

을 챙기기 위해 더욱 투쟁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과연 그럴까.

미국의 GM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세계최고의 ‘해가 지지않은 자동차 제국’이었다. 당시 미국 젊은이들은 GM에 입사하는 것이 커다란 꿈이었다. 사실상의 종신고용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복지혜택은 GM의 자랑이었다.

GM의 복지는 1936년 12월30일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주도하는 동맹과 업에서 얻어진 것이다. GM의 17개 공장

책이었다.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이다.

GM의 몰락은 일본·유럽산 자동차의 공세로 실질이 악화되는 위기상황에도 ‘행복한 근로여건’에 취해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노조의 ‘위기 불감증’이 큰 요인이라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혼주소는 어떤가. 원화 절상에 일본 자동차 업계의 저가 공세, GM·르노·닛산의 결합 움직임 등 삼중 사중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초토화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보다 판매 규모가 4배 이상 큰 포드, 도요타 등도 제휴나 상호 투자를 모색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 전통 깨는 결단 내려야

현대·기아차 노사가 한마음이 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노조가 내 뜻 찾기에만 물들해도 될 정도로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당장 내 뜻으로 돌아오는 파이는 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를 죽이고 자신들도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은 ‘GM의 자살꼴’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일 할 때인가, 아니면 투쟁할 때인가를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

“최대 위기에 직면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노조가 ‘전통을 깨는 Tradition-breaking’을 깨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성노조로 명성을 떨쳐왔던 UAW의 문 캐털링거 위원장이 GM 근로자의 인력감축을 수용하면서 한 말이다. 연례행사가 된 파업의 전통(?)을 깨지 않는다면 한국 자동차의 미래는 없다. 그리고 자동차 근로자의 내일도 없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편칼럼

이상욱



만취한 어느 친구가 공중 화장실에 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쓰러지더니 그만 잠이 들었다. 그러다 누군가 용변 보는 소리를 어렵듯이 듣고 중얼거리기를 “아이비아, 아무리 술이 취했기로서니 방바닥에 오줌을 쌌다?” 그 친구, 자기가 누워있으니 방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화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경기변증으로 사망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만취해 늦게 귀가해서 가족들을 들볶는 이른바 주정뱅이 아버지와 사는 자녀들이 적지 않다. “우리 집은 식구가 한 사람 늘었어요. 술 취한 아빠가 새로 생겼거든요.” 아홉 살짜리 꼬마의 말이다. 취한 아버지가 오죽 미웠으면 이런 소리를 할까.

## 과음의 폐단

다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알코올은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통칭해 술이라고 한다. 알코올은 위와 십이지장에서 체내로 흡수되며 간에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된다.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의 작용이 둔해져 판단력과 자제력이 약해지면서 자신감만 팽배해 음주운전 등 사고를 일으키기 쉽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폭력을 유발할 수도 있다.

술이란 적당히 마시면 결코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생활의 힐링소가 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주량에 알맞게 마시며 즐긴다.

만취한 사람이 문제다. 과음이 상습화되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과 직장에서도 커다란 해악을 끼친다. 신체적

으로는 지방간, 간암, 간경화의 수순을 밟는다.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항상 불안감을 주며 가정의 화복에 상처를 입히다가 결국 신뢰를 잃어 가장의 지위가 위태롭게 된다. 직장 또한 동료간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금이 가고 지각, 결근 등 근무 태만으로 불신임을 받는다.

그러니 과음하지 마시라! 과음의 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제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이다. ‘딱 한잔 더’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군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을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고성방言에 아귀다리를 더군다나 반려의 몸으로 추태를 부리니 그야말로 꼴불견의

## 독자마당

## 아이들의 올바른 식사 예절 학교에서도 지도해야

얼마 전 “학교 급식·간식 시간에는 빨리 먹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두 번 먹으려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로 인해 모자라게 받는 아이들로 나뉘어진다고 한다. 식사도 경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현실이다.

그러니 과음하지 마시라! 과음의 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절제 즉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이다. ‘딱 한잔 더’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군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곧 휴가철이다.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 술 취한 사람들을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고성방言에 아귀다리를 더군다나 반려의 몸으로 추태를 부리니 그야말로 꼴불견의

게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가 버린다.

학교 급식은 맞벌이 부부나 빙コン층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제도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아이들의 식사 습관이 거칠어지고 빨리 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아이들이 학교 급식을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식사문화와 예절도 함께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올바른 식사 예절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도 학교에서 지도해줘야 한다.

▲박나영·광주시 동구 소태동

## 주유 중 엔진정지 운전자들 적극 협조해야

주유 중 엔진 정지 제도가 걸돌고 있다. 각 소방관서는 지난 1월부터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으면 해당 주유소를 적발, 1차 위반은 50만원,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여지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에게 엔진을 정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아르바이트생들인데도 운전자와 시비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같다.

운전자들도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해야 하

는 줄 알면서도 귀찮다며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주유원의 엔진 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들도 있다고 한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기름을 넣을 때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유 중 엔진정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운전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김현기·광주시 북구 용봉동

## 농촌 노인 상대 물품 판매 사기 근절돼야

얼마 전 눈에 나갔다가 점심을 먹고 날씨가 더위 잠시 쉬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 영농조합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상품마케터인데, 우수한 제품을 엄선해 농협 조합원들에게만 싸게 파니 구입하라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특효약인 6년근 흉裳을 달여 만든 액기스이니 꼭 구매할 것을 요청하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전화를 끊은 뒤 그 영농조합이라는 곳이 정말 있는지 농협에 물어보니 ‘절대 속지 말라’고 했다.

농촌 노인들 대다수는 영농조합이라고 하면 농협인줄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무슨 영농조합이라고 한 뒤 조합원들에게만 싸게 판매한다고 하면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경우 속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과편치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농촌에 부모를 둔 자녀라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종학·보성군 미령면

은편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편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지하철 잡상인·선교활동 적극 제지해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늘어놓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계를 위해서라거나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내부에서 물건을 파는 것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하루 종일 업무에 지쳐 지하철 전동차에 앉았는데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한다면 승객들은 짜증스러울 뿐이다.

특정 종교인들의 선교 활동도 지하철 승객들을 괴롭힌다. 이 때문에 지하철 타기를 꺼리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다.

공의 요원이나 지하철 관계자들은 그냥 구경만 해서는 안된다.

단속에 나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전연희·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시설

## 새 경제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라

‘일자리 창출’이 바로 해답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며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그런데도 일자리는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다.

강봉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얼마 전 “좋은 일자리의 80%는 기업이 만든다”며 “분배니 뛰어드는 것이다. 이 달조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새로 만들어진 ‘괜찮은 일자리’가 모두 14만개로 2004년 30만개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은 취업시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요즘 취업시장에는 ‘이십대는 90%가 백수’ ‘실태들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뜻의 ‘이구백’ ‘십장생’이란 신조어가 유행한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상태에서 엑스포 여수 유치 전망은 밝지 않다. 아프리카 모로코 등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더구나 여수는 엑스포 유치전에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여수는 지난 2002년 말, 2010 엑스포 개최지 투표에서 상하이에 패배했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여수 엑스포 유치는 월드컵축구대회에 못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남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걸려있다고 할 수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날 BIE 사무총장에게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제공인(公認) 엑스포는 월드컵·올림픽과 함께 3대 국제행사로 꼽히고 있다. 일본 오사카와 독일 하노버의 예에서 보듯 엑스포 개최는 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각국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의 경험을 교훈삼아 여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간은 많지 않다. 개최지 투표일은 내년 말이다. 정부는 세계박람회 회원국들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시스템 구축하고 외교력을 총동원, 지지표를 확산시켜야 한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전주~광양 고속도로 건설 등 박람회 관련 SOC 확충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유리 가브린이다. 그러나 가브린 이전에도 유령 우주인과 중국에 비상 착륙했던 일루신이 있다.

이런 유령 우주인에 대한 의혹은 1960년대 초 우주에서 온 이상한 전파를 이탈리아 무선가가 포착하면서부터다. 그의 안테나는 옛 소련의 인공위성이 지나는 길목에 있어 우주교신을 염두할 수 있었다. 1960년 11월 3번이나 러시아어와 영어로 보내진 ‘전세계에 SOS’란 신호를 포착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가브린이 유령 우주인인 것이라는 설이 있다.

유령 우주인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유일한 생존자는 가브린보다 6일 빠른 1961년 4월 7일 우주로 향했던 일루신이다. 비록 1명이 오는 2008년 러시아 우주선 소유주를 타고 우주실험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우주선이 발사된 후 의식을 잃었고 지구를 3회전할 때쯤 의식을 되찾았다. 중국에 비상 착륙했으나 체포돼 1962년에야 조국으로 돌아갔다. 옛 소련은 결국 무사 귀환한 가브린을 최초